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8일 월요일 음 4월 17일 (9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19°C, 낮 최고 기온은 26-28°C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all categori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4) and sunset (22:16).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20/27°C.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day and tomorrow.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warning levels for food poisoning and UV rays.

월드뉴스

코로나19에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계속

1~5월 1844km² 삼림 사라져 201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우주연구기구(INPE)에 따르면 올해 1~5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1844k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12km²보다 22% 늘었다.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사이 산불과 무단 벌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증가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원주민 거주지역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NGO)인 '브라질원주민연결'(APIB)은 지금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원주민 11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브라질은 이에 역행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문미숙

행정사회부장

지난 주말 제주도 평화로를 지나다 갑작스레 악취를 만났다. 평소에도 간간히 경험하긴 했지만 악취가 주는 불쾌감과 동반되는 두통은 아찔 수 없다.

며칠 전 코로나19로 외식우수가 줄어든 대신 집에서 소비하는 분위기 확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고기를 사먹는 이들이 늘면서 돼지고기값이 오름세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전국민이 즐기는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제주산은 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에서 단연 으뜸이었는데 악취 문제로 옮겨가면 애기는 달라진다.

제주도의 축산악취 저감대책은 성공적인가?

제주도의 축산악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제주의 고질적 병폐다. 지난해 말 기준 268개 양돈장에서 40만 8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으로, 연간 양돈업 조수입은 4000억원이 넘는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내린 허가취소나 고발 등 행정처분은 172건이다.

한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18t의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인근 초지에 불법 배출했다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양돈장과 함께 악취 민원 건수도 급증했다. 2017년 727건이던 것이 2018년 1500건, 2019년 189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에서 2017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했던 일을 꺼내지 않을 수 없다. 한림읍 양돈농가 2곳에서 여러 해에 걸쳐 8500t의 축산분뇨를 제주 지하로 흘려보내가는 '숨골'에 불법배출한 사실이 적발됐고, 마을주민들은 '업자는 돈냄새, 읍민은 똥냄새'를 맡는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최근의 관련 수치만 놓고 보면 과연 그동안 모든 양돈업계의 인식이 달라졌는지 섣불리 신뢰가 가질 않는다.

결의대회를 접할 때마다 도민들은 악화된 여론에 '잡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대응책은 아니길 기대하곤 했다.

결의대회를 접할 때마다 도민들은 악화된 여론에 '잡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대응책은 아니길 기대하곤 했다.

열린마당

든든한 지원군 '학교계약지원팀'



강영실

성산중학교 행정실장

5개월 간에 걸친 시설공사들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학교 자체 시설공사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관련 규정 숙지부터 계약, 공사 감독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다.

학교에서 계약업무를 하면서 손에 넣지 않는 것이 있는데, '고치(함께) 배워보는 학교 계약 길라잡이'다. 교육재정과 학교계약지원팀에서 발행한 이 매뉴얼은 관련 법령부터 계약의 세부절차, 실무사례까지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나의 보너스다. 매뉴얼을 나침반 삼아 일을 처리해가다 보면 발행인의 노고가 눈에 그려진다.

학교의 계약담당자가 학교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검토할 때, 같은 규정인데도 상황마다 그 적용이 참 어렵고 복잡하다.

다양한 학교 업무에 맞춰 제도와 규정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바뀐다. 여전히 시설공사는 어렵고 부담스럽다.

NAVER 제일사 검색 결과 표를 보여줍니다.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 마라!



김은정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위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세상 하늘 아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세상에 빛을 보기 위해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다.

몇 해 동안 부모교육을 했다. 나 역시 세 아이를 둔 엄마이다. 부모란 아이를 낳기만 했다고 부여되는 권한은 아니다.

지난 1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의붓엄마에 의해 9살 남아 아이가 7시간가량 여행 가방에 갇혀 숨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왜 아이가 사망해야만 드러나는 것일까? 이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아동복지 방법에 대해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부모교육 방법도 시도해야 한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제일사)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a table of services with prices.

Advertisement for Boraflower (꽃보라) featuring various potted plants and a storefront image.